

Petrobras, 1000억달러 클럽 합류

2006년 말 주식가치 총액 1078억달러 ... 남미·아프리카 유전 개발로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 기업가치 평가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브라질 언론이 1월4일 보도했다.

Petrobras 관계자는 발표자료를 통해 “2006년 말 주식총액을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 평가에서 1078억4600만 달러를 기록해 1000억달러 기업 대열에 확실하게 들어섰다”고 밝혔다.

Petrobras의 기업가치는 이미 2006년 4-5월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주가 변동상황을 감안해 최종적인 평가가 연말로 미루어졌었다.

Petrobras는 브라질 외에도 최근 수년간 앙골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미국, 페루, 베네주엘라 등으로 유전 개발활동을 넓히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를 비롯해 미국 뉴욕,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에도 상장되는 등 국제기업의 면모를 갖추어왔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2002년 153억8200만달러, 2003년 306억6200만달러, 2004년 423억4100만달러, 2005년 743억2400만달러, 2006년 1078억4600만달러로 5년만에 600%가 넘는 빠른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Petrobras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135억배럴에 달하며, 하루 평균 생산량은 232만1000배럴을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5>